

아고산대 훼손에 관한 이용자 의식조사
-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을 대상으로 -
Investigation of Vistors' Consciousness on Subalpine Belt Damage
- Focused on the Mt. Sorak Daechungbong -

강민구^{1*} · 조태동² · 조현주² · 신병철³

¹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대학원 · ²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³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I.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제도는 미국으로부터 약 1세기 뒤진 1967년에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을 그 원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제도의 도입 당시, 정부는 국립공원의 지정을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취급하였고, 국립공원에 대한 주무부서는 건설부가 맡아 시·도에 위임 관리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시·도에서는 개발우선정책에 주력하였다(조태동, 2003). 건설부는 1967년부터 1990년까지 국립공원의 주무부서로서 약 30여년을 관장하였으며, 당초부터 1986년까지는 시·도에 위임 관리하였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지역개발을 우선한 개발정책은 자연과 경관파괴, 생태계파괴 등 심각한 환경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용자의 급증에 의한 등산로 쇄굴, 쓰레기 문제 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1987년 건설부 산하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전문조직에 의한 보호와 이용의 균형있는 국립공원 정책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1991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관리청이 변경되었고, 1998년 다시 환경부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부처간의 이권 및 자연공원에 대한 국민의 성숙도와 세계동향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환경부산하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20개의 국립공원 중 18개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경주국립공원, 한라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오동도지구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하에 설악산 국립공원은 1970년에 국립공원 제 5호로 지정되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인 1965년에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163.4km²) 제 17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2년에 UNESCO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유일의 생물권 보전 지구로 지정되었다(최오길, 2001). 또한 문화 관광부에서 지정한 『천연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고산대는 기존산림의 식생과 다른 지형적, 기후적 특성에 따른 식생 및 식물 생장이 특이하게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나, 설악산 대청봉 아고산대 주변의 이용현황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등산로 과밀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이용자가 국립공원을 위락활동의 공간으로 생각하거나 정상 지향적 등산으로 인해 산정상부 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0).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아고산대의 훼손정도에 따른 이용자들의 의식을 알아보고, 보전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조사는 기존의 문헌을 기초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관광객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을 거친 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가을철인 2002년 10월 11~12일과 2002년 10월 26~27일에 걸쳐서 각각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 밖의 이용자와의 일대일 면담을 하여 얻어진 자료들은 기타의견으로 간주하였다. 조사된 설문은 Excel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으로 구성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이용객 속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총 100명의 이용자 가운데 성별비는 남 62%, 여 38%로 남자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은 30대가 36%, 20대가 30%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40대가 19%로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이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전문직 종사자가 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사업가가 20%이었으며 회사원 18%, 주부 14%, 학생 13%, 공무원 6%, 기타 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이 34%, 대졸이 32%로 나타났다.

2. 아고산대 훼손에 대한 이용자 의식

우선 조사 대상지의 자연적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물권 보존지구로 지정된 사실과 아고산대의 지리적 중요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의 70% 이상이 설악산이 생물권 보존지구라는 사실과 아고산대의 지리적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으며, 알고 있는 30% 이하의 이용자들 또한 단순하게 지정 사실만을 알고 있는 정도로 아직까지 설악산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의 훼손요인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조사를 위하여 대청봉을 올랐을 시 불쾌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등산객의 혼잡' 42%, '주위의 쓰레기 등의 오염물' 28%, '자연훼손' 25%이었으며, 기타 5%로 나타났다. 또한 대청봉 주변 아고산대의 훼손정도에 대한 인식정도는 '훼손이 심각하다'가 55%이었으며, '보통이다' 40%, '훼손이 심각하지 않다'가 5%로 나타났다.

조사지의 훼손방지에 대한 현재 관리방식의 가능성 및 보전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 대청봉 주변의 관리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78%로 공원관리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20%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관리방식으로 했을 때 훼손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누적훼손'이 38% '증가된 등산객' 36%, '시설물 부족' 17%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등산객의 인식부족과 공단의 관리부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휴식년제도입' 45%, '조기교육' 20%, '예약제 도입' 15%이며, 그리고 '법적규제' 13%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환경에 대한 복원 방법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관리인원 증원과 등산로

의 축소 등이 있었다.

또한 훼손지의 복원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보면, '이용자 개개인의 의식변화' 65%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차원에서의 법적규제' 30%, 그 외 관리의 지방자치화 및 관리공단의 전문인력증대 등의 의견이 있었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법적 규제를 가한다면 따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용자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외 실제 법적 규제를 가하더라도 무시하고 산을 오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3. 개선방안

개인적인 견해를 보면, 조사대상지 아고산대의 훼손에 대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용자중 대부분이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훼손의 누적과 이용자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훼손이 자연 파괴의 주요인이라고 답변하였다. 아고산대 훼손방지에 대한 관리방안의 가능성 및 보전방법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현재의 관리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장기적인 계획 하에 휴식년제 도입과 사전예약제 등의 법적규제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수를 줄여 나감으로서 아고산대의 훼손을 방지하기를 바라는 의견과 일부 이용자들은 정부 중심의 관리에서 관리의 지방 자치화로의 변화를 통한 관리체계의 효율성 증대의 방법에 관심을 보였다.

IV. 결론 및 제언

설악산 국립공원은 1982년에 UNESCO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유일의 생물권 보전 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문화 관광부에서 지정한 『천연 보호구역』이며 국립공원에서 가장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보전지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간 설악산 방문자수는 약 300만명에 이르고 있고, 그로 인하여 생태적 식생의 주요가치가 있는 아고산대가 이용자에 의한 훼손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청봉 아고산대 주변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식생을 보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단계적인 이용자의 방문수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사전예약제 및 선착순제를 통하여 이용 방문자수를 법적인 규제속에서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청봉 아고산대 주변에 이용자 측면보다는 관리적 측면의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일일 최고 입장객수가 6만에서 7만명에 이르는 현재의 추세에 따른 토양의 유실 및 토양 답압에 따른 아고산대 식생의 훼손을 방지하여 자연식생으로의 천이를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악산 및 여타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대하여 학교 및 사회단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바른 인식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적인 여건을 강화하여 자연의 가치증대 효과와 홍보효과를 기대하여야겠다.

또한, 정부의 규제 및 사회적 여건의 기반조성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개개인의 인식의 변환과 성숙한 자연관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고산대 훼손에 대한 이용자 의식구조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설문응답을 받는데 있어서 계절별 요인을 살펴보지 않았고, 비수기와 성수기, 그리고 주말 및 휴일과 주중으로 나누어 이용자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시에는 요일별,

계절별, 성수기·비성수기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조태동(2003), 한국환경과학회지, 국립공원 관리권 지방위임에 대하여, pp.354~356
2. 국립공원관리공단(2000), 국립공원별 특성에 따른 공원관리방안 연구, pp.23
3. 최오길 (2001). 등산객에 의한 답압이 설악산 아고산대에 자생하는 식물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0
4. 조태동, 이명우, 김진선(199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제 개선에 관한 연구, pp.185~202